

고령사회 어루만지는 '작업치료 전문가' 양성 두각

●광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6개월간 임상실습·현장 실무 등 전문성 강화 주력
최신 연구 동향·재능기부 봉사료 사회적 책임감 ↑

광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가 손 상된 신체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전문성과 상처 난 마음을 어루만질 인성을 두루 겸비한 작업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로 주목받고 있다.

30일 광주대학교에 따르면 누구나 한번은 질병, 사고, 노화 등을 겪는다. 때문에 일상 복구를 도와주는 전문 재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광주대 작업치료학과는 세계작업 치료사연맹(WFOT)이 인정하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다양한

면허(작업치료사 면허증, 감각발달 재활사 자격증, 보조공학사 면허증) 및 자격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과는 졸업 후 현장실무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6개월간의 작업치료 임상실습을 통해 실제 치료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다양한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장감을 익히고 있다.



광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광주 365재활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고 있다.

〈광주대학교 제공〉

다. 학문적 지식 외에도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종합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가 초청 특강을 통해 최신 연구 동향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재능기부 봉사 활동에서는 사회적 책임감 및 작업 정의를 함양하고 있다.

또한 학술제에서는 학생들이 관심있는 작업치료 관련 주제를 발표하고 실습 성과를 공유한다.

더불어 학과 중심의 비교과 활동을 통해 학생들 간 친목과 협동 정신을 다지고, 전공 외에도 다양한 취미와 관심사를 나누며 인간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황민지 작업치료학과장은 "작업 치료는 미래 일자리 수요가 가장 늘어날 수 있는 직업군이자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직업적 희소성을 갖춘 유망 분야"라며 "학생들이 학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성장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다이기자

도교육청-CJ CGV, 글로컬 학생영화제 개최 협력

업무협약 체결...작은학교 영화제 전국 규모 확대 등 활성화 추진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CJ CGV와 글로컬 학생영화제 개최 및 영상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월 CGV목포평화광장점에서 열린 '제1회 전남도교육청 작은학교 영화·영상제'를 더욱 발전시켜 (가칭)글로컬 학생영화제로 새롭게 개최해 전남교육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도교육청은 최고의 상영 서비스 시스템을 보유한 CJ CGV의 지원을 바탕으로

으로 전남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CJ CGV는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 작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상영관 내 배너와 포스터 게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전남 작은학교의 가치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전남교육 실현에 기여한다.

조진호 CJ CGV 국내사업본부장은 "K-무비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에서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꿈을 키우고 '혼자가 아닌 같이 성장하는'



교육을 추구하는 도교육청의 교육 비전에 동참한다"며 "전남 작은학교 학생들이 만든 영화가 더욱 주목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전남교육은 공

생의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해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특성화 교육을 위해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오늘의 협력은 내일의 글로컬 리더를 키워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카메라에 담아낸 작은 세상이 CJ CGV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더 크고 넓은 세상으로 뻗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작은학교 특색 프로그램인 '영상으로 담아내는 작은 학교' 사업을 확대하고, 작은학교 영화·영상제를 발전시켜 전국 규모의 글로컬 학생영화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김다이기자

국내 항만선박 안전 강화 '맞손'

목포해양대-한국예선업협동조합, 전문교육 추진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해운항만물류인력양성사업단은 "최근 한국예선업협동조합과 전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소속 선박의 항만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해운항만물류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운항만물류인력양성사업단은 그동안 첨단 교육 시스템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해운항만물류 인재 양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이번 협력을 계기로 기존의 외항선박 중심 교육에서 내항선박까지 교육 내용을 확대하며, 항만 내 작업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됐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교육 참여는 조합원 선박과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성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항만선박 사



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법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운재 해운항만물류인력양성사업단장 교수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과의 협력은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학계에서 교육을 통해 해결하는 상생 모델로, 항만 안전 강화와 해양 사고 예방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며 "교육생들에게 실무에 즉각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기술과 지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시교육청, 기록관리 기관평가 7회 연속 '최우수'

업무 기반·업무 추진 분야 만점...종합평가 '가' 등급

광주시교육청은 30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주관하는 '2024년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7회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기록관리 기관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관 유형별로 나눠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

육지원청, 정부산하 공공기관 총 23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기록관리 실적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평가는 ▲기록관리 업무기반 ▲기록관리 업무추진 ▲기록관리 중점 추진사례 등 기타, 3개 분야 22개 지표로 진행됐으며, 시교육청은 기록관리 필수 영역

인 업무 기반 및 업무 추진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다. 또 선택 영역인 기타 분야까지 포함해 전체 96.84점을 받아 평가기관 전체 평균 84.1점을 크게 웃돌았다.

동·서부교육지원청도 2개 기관 합산 점수가 평균 90점을 넘어 전국 교육지원청 평균인 73.9점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전체적인 기록관리 수준이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다이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이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